

출판유통통합전산망

# 판매 데이터 리포트

2025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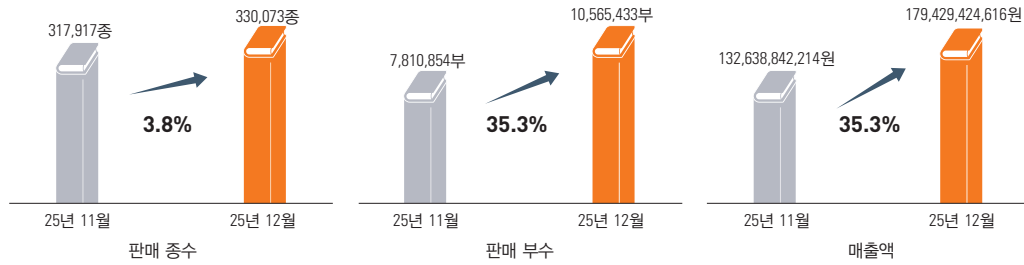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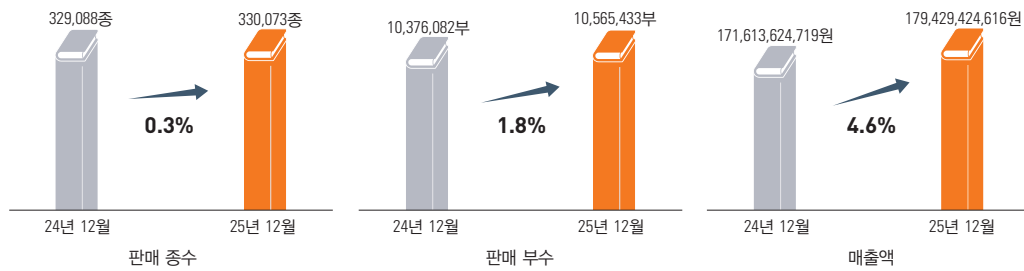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2025년 12월 판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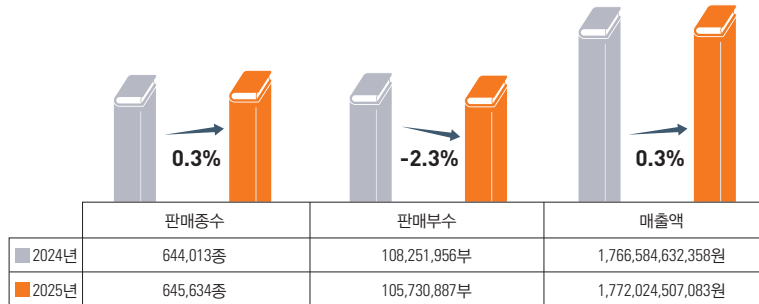
## ■ 2025년 12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 증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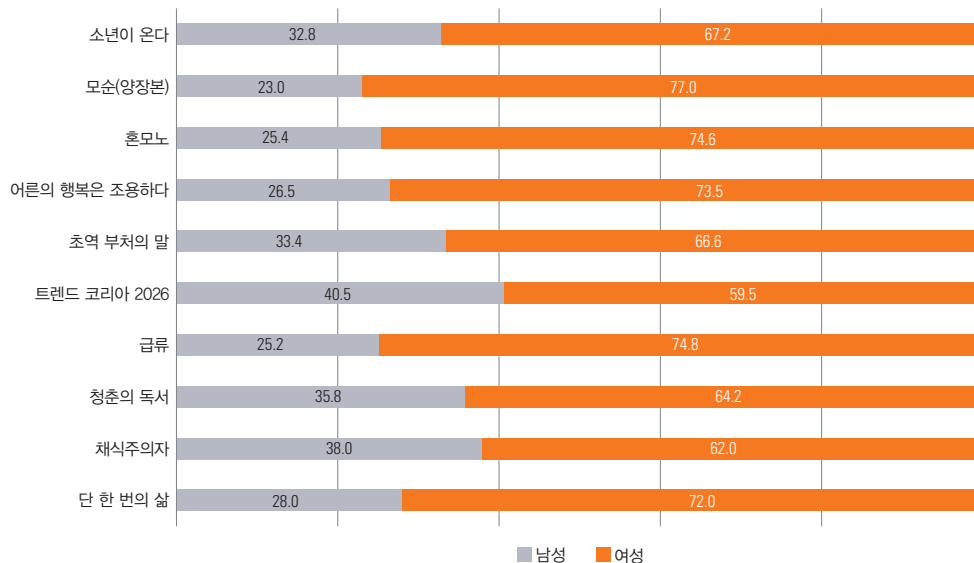
## ■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증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 ■ 2024년, 2025년 판매 동향



## ■ 종합 10위권 성별 판매 비중 (단위: %)



# 일러두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 유통 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 유통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출판사는 도서의 메타데이터(도서 정보)를 온라인 서점 등 유통사에 공유하고 홍보·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망과 연계된 대형서점 및 지역서점의 판매 데이터 및 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망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도서 정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OPEN API로 연계된 도서관, 지역서점, 유통단체 등에도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전송된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현재 전산망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및 일부 지역서점으로부터 판매 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의 도서 주제분류는 국제표준 테마(Thema)를 따르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에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데이터

(분석 대상 기간)

- 2025년 12월

(기타 안내)

-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품/취소 건이 발생하거나 추가 판매 데이터가 전송된 경우, 데이터 추출 시점과 현재 데이터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구용

편집인 김일희

대표 편집위원 김동혁

편집위원 김정명, 오민재

발행월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홈페이지 [bnk.kpipa.or.kr](http://bnk.kpipa.or.kr)

E-mail [kbookdata@kpipa.or.kr](mailto:kbookdata@kpipa.or.kr)

기획/편집 출판전산망운영실

디자인/제작 (주)도픽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2025년 12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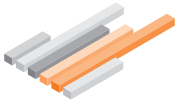
2025년 12월 판매 동향

2025년 출판시장 동향 10

1. 2025년 도서 판매 동향
2. 2025년 성별, 연령대별 도서 판매 동향
3. 2025년 주제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4. 출판 트렌드, '실용'에서 '성찰'로
5. 2025년 베스트셀러, 성별·연령별 독서 패턴 분석

# 판매 데이터 리포트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판매 동향

2025년 12월 출판시장, 11월 대비 모든 분야 상승... 점진적 회복세  
판매 종수 3.8% ↑, 판매 부수 35.3% ↑, 매출 35.3% ↑

2025년 12월 출판시장은 전월인 11월과 비교해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전 부문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sup>1)</sup>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2월 한 달간 판매된 도서는 총 330,073종, 판매 부수는 10,565,433부, 매출액은 약 1,794억 2,942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1월 대비 판매 종수 3.8%, 판매 부수 35.3%, 매출액 35.3% 증가한 수치로 연말 효과와 함께 판매량과 매출을 중심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특히 판매 종수의 완만한 증가와 함께 판매 부수와 매출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시장 규모와 소비 강도가 동시에 개선되는 양적·질적 회복 신호로 파악된다.

12월 '화제의 책 200선'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트렌드 코리아 2026》이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로 집계되며,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도 높은 관심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의 사회·경제·소비 흐름을 전망하려는 독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뒤를 이어 최태성 작가의 《최소한의 삼국지》, 제172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황석영 작가의 신작 《할매》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뚜렷한 판매 흐름을 형성했다. 특히 11월과 비교해 보면 12월에는 소설, 문학, 철학 분야 등 서사성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 도서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한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을 맞아 독자들의 관심이 실용적 정보 중심의 도서에서 벗어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면적 성찰이나 서사적 몰입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서비스 플랫폼)이며, 출판사 및 유통사(온·오프라인 서점 등)의 참여·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매 종수는 전월 대비 3.8%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는 신간 출간 효과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독자들의 선택 가능한 도서 폭이 다소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출판시장은 급격한 성장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 부수는 35.3% 증가해 판매 종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연말 도서 수요와 선물용 도서 구매, 각종 프로모션 효과가 맞물리며 도서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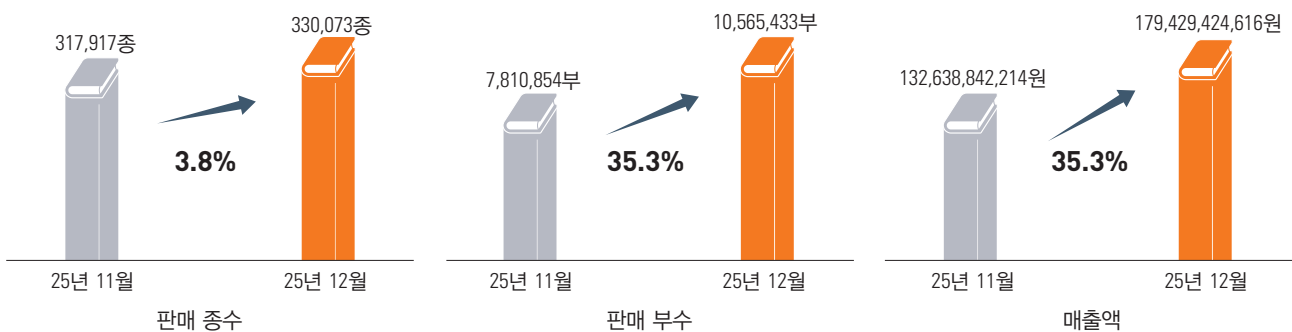
매출액 역시 판매 부수 증가와 동일한 3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판매량 확대가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었음을 의미하며, 평균 단가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동 없이 시장 전반의 소비 규모 자체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말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도서 구매에 대한 지출이 다시 활성화되며, 출판시장이 계절적 성수기의 효과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 2025년 12월 판매 동향

구분	11월	12월	2024년 12월	비교*
월 판매 총 종수(종)	317,917	330,073	329,088	3.8% ↑
월 판매 총 부수(부)	7,810,854	10,565,433	10,376,082	35.3% ↑
월 판매 총액(원)	132,638,842,214	179,429,424,616	171,613,624,719	3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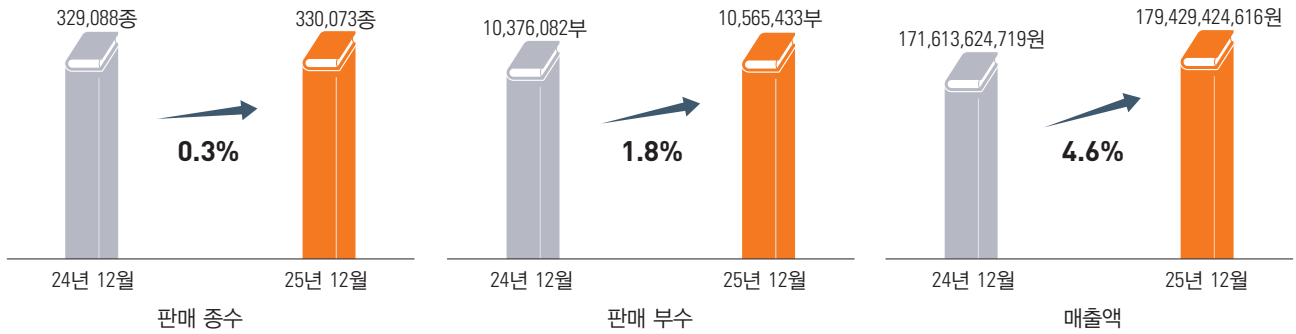
\*비교 = 전월 대비 증감률

### ■ 2025년 12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전년 동월인 2024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모두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판매 종수는 0.3%, 판매 부수는 1.8%, 매출액은 4.6% 각각 증가하며 완만한 시장의 회복 흐름이 확인됐다. 출간 종수 및 유통 도서 규모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구매 수요가 소폭이나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판매량 증가 폭에 비해 매출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점은 출판시장의 수익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2025년 12월 출판시장은 전월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연말 효과에 따른 전반적인 반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학습, 문학, 실용, 어린이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세가 확인되었다. 전월 대비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선택적 성장과 구조적 위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연말 성수기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 5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학습서와 아동서를 중심으로 한 연말 수요와 학기 전 대비 구매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32.6%),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분야(34.7%), [컴퓨터, 정보기술] 분야(34.1%), [철학, 종교] 분야(29.3%),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분야(28.7%) 등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연말 소비 확대와 더불어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양상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는 분야별로 상반된 흐름이 확인된다. [그래픽노블, 만화] 분야가 26.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인물, 문학, 문헌연구] 분야(22.9%), [역사, 고고학] 분야(13.9%), [언어, 언어학] 분야(10.7%),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6.9%) 순으로 매출이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참고서적·정보, 학제적 주제] 분야(-33.9%), [법] 분야(-24.9%),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16.9%)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일부 장르에서 발생했던 이례적인 판매 증가 효과가 소멸된 영향으로 보이며 독자들의 도서 구매가 필수성이나 목적성이 분명한 분야로 선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함께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는 전월 대비 57.7%,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하며 두 지표 모두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겨울방학 진입과 함께 EBS 교재를 비롯한 학습서 판매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당 분야 상위 50위 도서를 살펴보면 학습서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말 및 방학 시즌의 학습 수요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와 함께 《흔한 남매》 시리즈가 분야 1위를 비롯해 상위권을 다수 차지했으며, 루리 작가의 《긴긴밤》과 《나나 올리브에게》 등도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이어갔다.

[언어, 언어학] 분야도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하며 비교적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학습서 전반의 판매 흐름과 유사하게 토익, 토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증 및 어학시험을 대비한 연말 학습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초 시험 일정을 염두에 둔 선제적 구매가 12월 매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 문학, 문학연구] 분야는 전월 대비 22.4%, 전년 동월 대비 22.9%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11월부터 이어진 판매 흐름이 12월에도 지속된 결과로, 특정 저자 중심의 수요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태성의 《최소한의 삼국지》, 문형배의 《호의에 대하여》, 나태주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 등이 판매를 견인한 가운데 이치조 미사키 작가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해당 분야 8위에 진입하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도서는 2021년에 출간된 구간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오세이시)>의 원작소설로 재조명되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누적 13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의 영화화가 도서 판매로 이어지는 동반 효과를 창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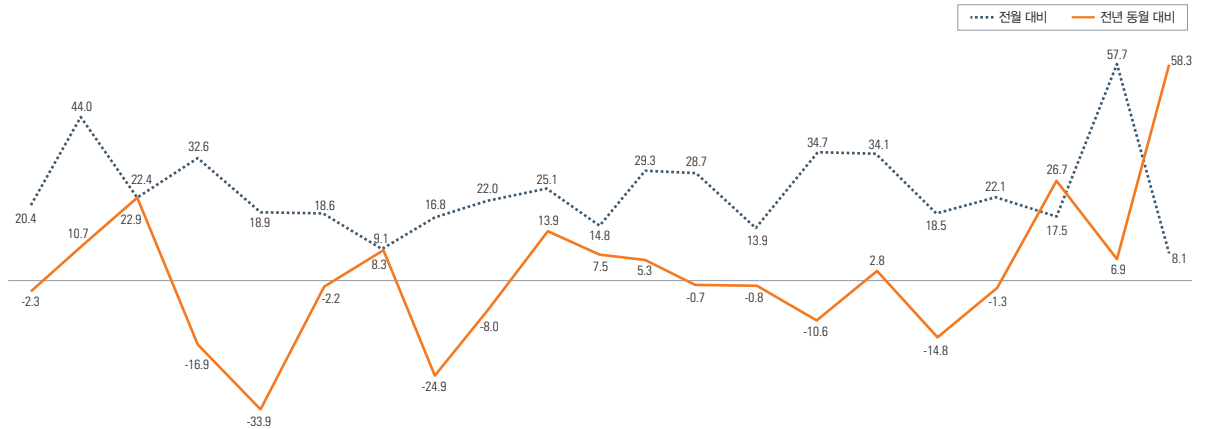
[역사, 고고학] 분야와 [철학, 종교]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띈다. [역사, 고고학] 분야는 전월 대비 25.1%,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으며, 《한번 시작하면 잠들 수 없는 세계사》, 《최소한의 한국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 대중역사서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총, 균, 쇠》, 《사피엔스》 등 구간 스테디셀러 역시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며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수요를 뒷받침했다. [철학, 종교] 분야 또한 전월 대비 29.3%,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초역 니체의 말》, 《니체 인생수업》 등 삶의 태도와 자기 성찰을 다룬 도서들이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는 전월 대비 32.6%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는 해당 분야에서 10월 2위, 11월 5위, 12월 15위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2025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스키 유이 작가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1위에 오르며 해당 분야 내 판매를 견인했고, 황석영 작가의 《할매》 역시 출간 이후 6위에 진입하며 판매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 ■ 2025년 12월 주제 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구분	매출액(원)			증감률(%)	
	2024년 11월	2025년 12월	2024년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예술	4,555,609,588	5,485,681,807	5,616,437,112	20.4 ↑	-2.3 ↓
언어, 언어학	7,146,124,745	10,287,402,955	9,289,207,417	44.0 ↑	10.7 ↑
인물, 문학, 문학연구	12,173,768,798	14,899,230,943	12,127,414,297	22.4 ↑	22.9 ↑
소설 및 연관 상품	11,058,467,377	14,665,512,491	17,642,888,648	32.6 ↑	-16.9 ↓
참고서적, 정보, 학제적 주제	1,304,354,864	1,550,653,167	2,345,721,197	18.9 ↑	-33.9 ↓

사회, 사회과학	14,134,608,046	16,762,956,328	17,131,535,278	18.6 ↑	-2.2 ↓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11,109,284,896	12,119,040,825	11,189,275,221	9.1 ↑	8.3 ↑
법	360,942,931	421,648,212	561,378,305	16.8 ↑	-24.9 ↓
의학, 간호학	961,425,472	1,173,201,507	1,275,846,245	22.0 ↑	-8.0 ↓
역사, 고고학	2,470,906,304	3,089,928,729	2,713,136,717	25.1 ↑	13.9 ↑
수학, 과학	2,583,931,592	2,966,880,702	2,758,743,069	14.8 ↑	7.5 ↑
철학, 종교	6,114,210,413	7,908,635,493	7,508,225,931	29.3 ↑	5.3 ↑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139,511,037	179,585,374	180,871,056	28.7 ↑	-0.7 ↓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379,256,870	432,108,505	435,728,395	13.9 ↑	-0.8 ↓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1,204,695,807	1,623,227,006	1,816,385,825	34.7 ↑	-10.6 ↓
컴퓨터, 정보기술	3,295,302,617	4,419,102,795	4,299,853,840	34.1 ↑	2.8 ↑
건강, 인간관계, 개인발전	7,398,256,278	8,764,893,285	10,285,746,566	18.5 ↑	-14.8 ↓
생활, 취미, 레저	3,385,115,065	4,131,872,879	4,187,228,984	22.1 ↑	-1.3 ↓
그래픽노블, 만화	5,225,126,003	6,139,114,384	4,845,651,570	17.5 ↑	26.7 ↑
어린이, 청소년, 학습	37,453,170,311	59,052,831,912	55,235,180,956	57.7 ↑	6.9 ↑
기타	184,773,200	199,797,920	126,229,070	8.1 ↑	5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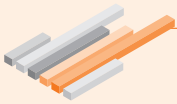
	예술	언어 언어학	인문, 문학, 문화연구	소설 및 연관 상품	참고서적, 정보, 학제적 주제	사회, 사회과학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법	의학, 간호학	역사, 고고학	수학, 과학	철학, 종교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컴퓨터, 정보기술	건강, 인간관계, 개인발전	생활, 취미, 레저	그래픽 노블, 만화	어린이, 청소년, 학습	기타
..... 전월 대비	20.4	44.0	22.4	32.6	18.9	18.6	9.1	16.8	22.0	25.1	14.8	29.3	28.7	13.9	34.7	34.1	18.5	22.1	17.5	57.7	8.1
—— 전년 동월 대비	-2.3	10.7	22.9	-16.9	-33.9	-2.2	8.3	-24.9	-8.0	13.9	7.5	5.3	-0.7	-0.8	-10.6	2.8	-14.8	-1.3	26.7	6.9	58.3



김동혁 \_ 서울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조교수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출판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024),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2024), 『적소이론을 통해 본 도서 발견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으며,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대응한 대안 제시와 정책 제언에 힘쓰고 있다.

# 2025년 출판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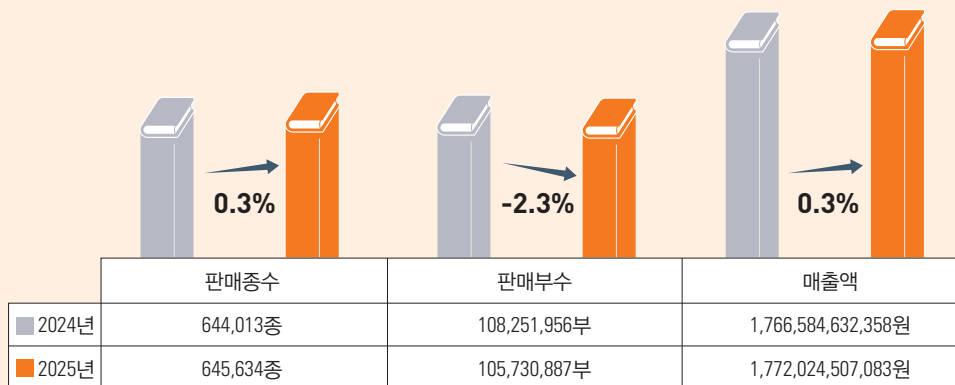


## 1. 2025년 도서 판매 동향

2025년 출판시장은 도서 분야별로 판매량 증감 흐름의 편차가 확대되며, 시장 전반의 회복보다는 장르별 선택과 집중이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문학, 소설, 만화, 아동 분야 등 일부 장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난 반면 정보, 학술, 실용 중심의 분야에서는 감소 또는 정체 흐름이 이어지며 출판시장 내 수요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판매 데이터를 통해 2025년 도서 판매 동향을 살펴본 결과 총 64만 5,634종의 도서가 1억 573만 887부 판매되었으며, 이에 따른 총 매출은 약 1조 7,720억 2,4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해 판매 부수는 2.3% 감소했으나 판매 종수와 매출은 0.3% 증가한 수치로,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온라인 서점이 6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대형서점 29.4%, 지역서점 6.1% 순으로 나타났다.

### ■ 2024년, 2025년 판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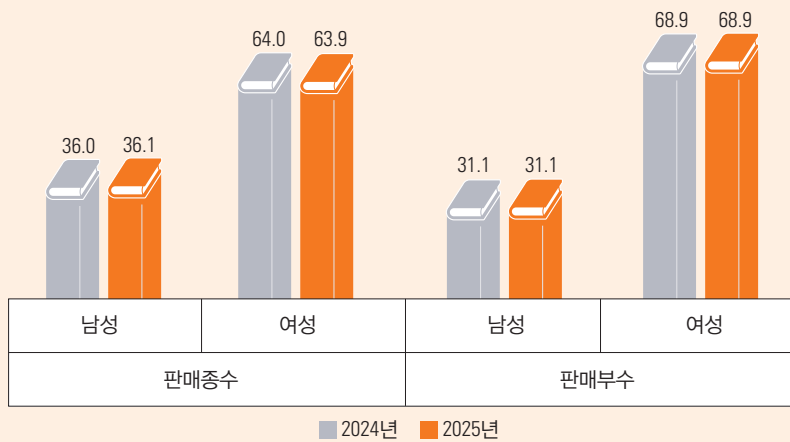


## 2. 2025년 성별, 연령대별 도서 판매 동향

2025년 출판시장 판매 데이터를 성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판매 부수와 판매 종수 모두에서 여성 독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부수 기준 여성 비중은 68.9%, 남성은 31.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판매 종수 기준에서도 여성 독자 비중은 63.9%, 남성은 36.1%로 집계되어 큰 변화 없이 여성 중심의 소비 구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성별 소비 구조에서는 뚜렷한 변화 없이 기존 흐름이 이어졌으며, 향후 시장 변화 역시 성별 요인보다는 장르별 수요와 독자 성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 2024년, 2025년 성별에 따른 연도별 수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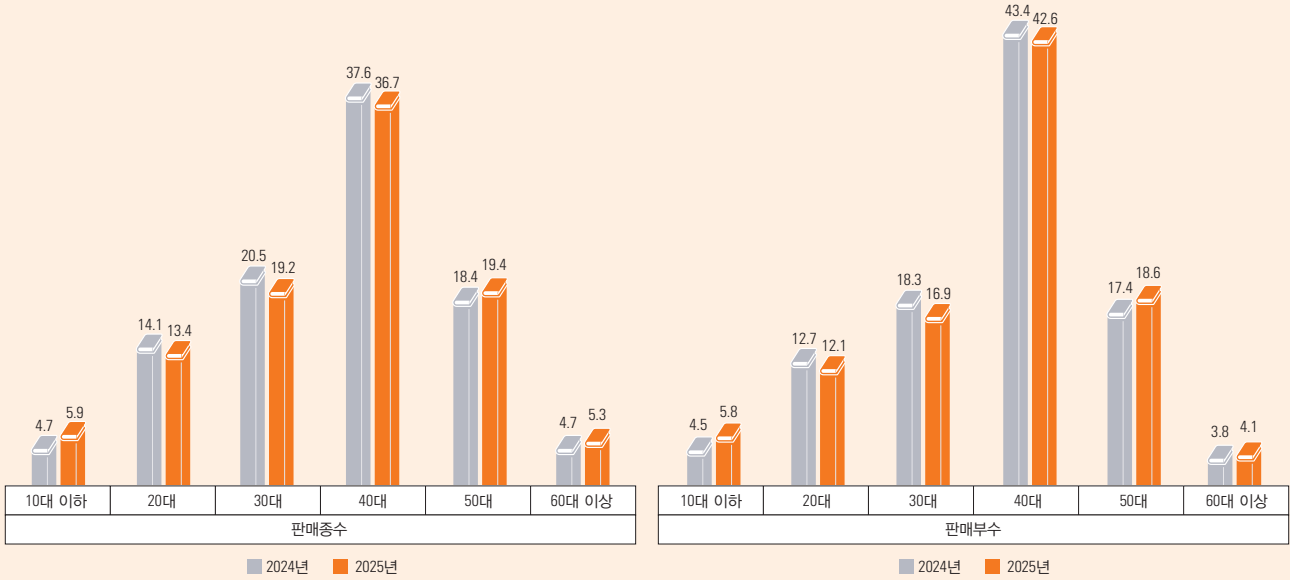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판매 부수와 판매 종수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독자층의 위치를 유지했다. 다만 40대의 판매 부수 비중은 43.4%에서 42.6%로 소폭 감소, 판매 종수 역시 37.6%에서 36.7%로 각각 소폭 감소해 주력 연령층의 비중이 다소 완만하게 축소된 흐름이 나타났다.

30대와 20대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며, 20~40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력 독자층의 구매 강도가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판매 부수와 판매 종수 비중이 모두 증가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의 참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역시 판매 부수와 판매 종수 모두에서 소폭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유지했다.

종합하면, 2025년 출판시장은 40대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력 연령층의 비중은 완만히 낮아지고 주변 연령대로 소비가 점진적으로 분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출판시장의 회복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기보다는 연령 기반 독자 수요가 점차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24년, 2025년 연령별에 따른 연도별 수치 변화 (단위: %)



### 3. 2025년 주제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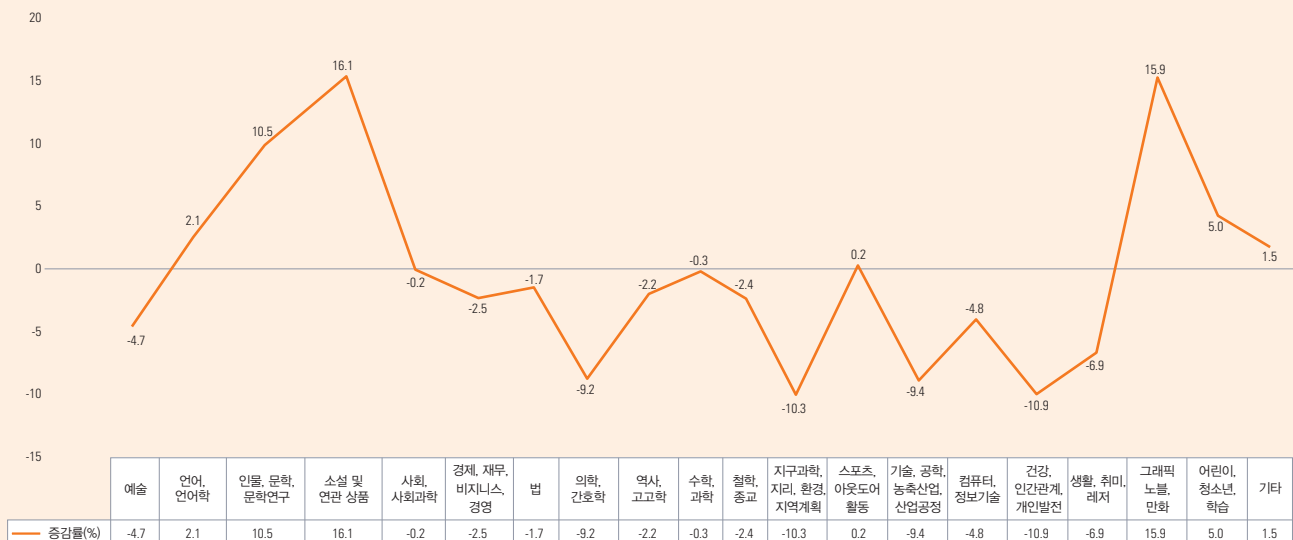
2025년 출판시장은 주제분류별(도서분야별)로 증감 편차가 있으며,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선택적 성장과 구조적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문학, 소설, 만화, 아동 분야를 중심으로 독자 수요가 명확한 장르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16.1%), [그래픽노블, 만화] 분야(15.9%), [인물, 문학, 문학연구] 분야(10.5%),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5.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설과 문학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소년이 온다》, 《모순》, 《급류》 등이 꾸준한 독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픽노블, 만화] 분야와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의 상승은 애니메이션 영화와 학습만화 판매 등으로 지속적인 고정 수요와 콘텐츠 접근성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언어·언어학, 스포츠·아웃도어 분야는 소폭 상승에 그쳐 제한적인 회복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감소세가 나타난 분야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건강, 인간관계, 개인발전] 분야(-10.9%)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며,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분야(-10.3%), [의학, 간호학] 분야(-9.2%),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분야(-9.4%) 등 전문성과 정보성이 강한 분야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다. 또한 [생활, 취미, 레저] 분야(-6.9%), [예술] 분야(-4.7%), [컴퓨터·정보기술] 분야(-4.8%) 등 실용·취미 중심 분야도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 2025년 주제분류별 매출액 증감률<sup>1)</sup>

구분	매출액(원)		증감률(%)
	2024년	2025년	
예술	64,101,669,390	61,068,596,570	-4.7
언어, 언어학	100,049,107,983	102,187,745,535	2.1
인물, 문학, 문학연구	122,448,525,826	135,264,342,171	10.5
소설 및 연관 상품	116,808,440,233	135,634,467,197	16.1
사회, 사회과학	196,842,702,082	196,531,415,354	-0.2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118,497,317,264	115,549,241,452	-2.5
법	6,522,122,940	6,409,263,516	-1.7
의학, 간호학	16,112,379,454	14,625,845,927	-9.2
역사, 고고학	29,271,174,821	28,619,564,884	-2.2
수학, 과학	33,066,030,576	32,964,305,665	-0.3
철학, 종교	78,908,278,316	77,035,256,988	-2.4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2,459,242,113	2,205,570,795	-10.3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5,703,606,777	5,712,603,262	0.2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23,565,777,319	21,356,283,204	-9.4
컴퓨터, 정보기술	50,110,273,942	47,727,840,467	-4.8
건강, 인간관계, 개인발전	105,741,190,650	94,200,285,946	-10.9
생활, 취미, 레저	44,326,797,152	41,288,000,605	-6.9
그래픽노블, 만화	50,144,045,991	58,135,553,496	15.9
어린이, 청소년, 학습	547,485,882,468	574,780,679,794	5.0
기타	2,103,455,441	2,134,235,603	1.5



1) 주제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분석에서는 [참고서적, 정보, 학제적 주제] 분야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분야는 2024년 기준 매출 데이터에 일부 조정 사항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증감률 산출 시 비교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단, 2025년 기준 해당 분야의 매출액은 19,151,120,828원으로 집계되었다.

## 4. 출판 트렌드, '실용'에서 '성찰'로

2024년과 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를 비교해 보면, 두 해 모두 《소년이 온다》가 1위를 유지하며 문학 분야의 강력한 스테디셀러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2025년에는 2024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모순》이 2위로 상승하며, 신간 중심의 순위 변동보다는 이미 검증된 구간 도서가 상위권을 재차 견인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독자들의 구매가 새로운 자극보다는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품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4년 상위권에 포함됐던 《작별하지 않는다》, 《세이노의 가르침》,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불변의 법칙》 등 자기계발·철학·경제 교양 성격의 도서들은 2025년 상위 10위권에서 이탈한 반면, 2025년에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초역 부처의 말》, 《청춘의 독서》, 《단 한 번의 삶》 등 삶의 태도와 정서적 성찰을 다루는 도서들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이는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내면적 위안과 사유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독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2024년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이어 2025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한 점은 연말·연초 시점에 사회·경제 흐름을 전망하려는 독자 수요가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베스트셀러 시장은 신작이 대거 유입되었다기보다 구간 중심으로 재집중되었으며, 문학과 정서적 비문학의 비중이 확대, 그리고 '실용'에서 '성찰'로 독서 목적이 이동했다는 특징을 보이며, 도서 소비가 보다 보수적이고 선택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 ■ 2024년, 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비교

순위	2024년	2025년
1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2	채식주의자	모순(양장본)
3	작별하지 않는다	흔모노
4	세이노의 가르침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5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초역 부처의 말
6	불변의 법칙	트렌드 코리아 2026
7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급류
8	흰(양장본)	청춘의 독서
9	모순(양장본)	채식주의자
10	트렌드 코리아 2025	단 한 번의 삶

## 5. 2025년 베스트셀러, 성별 · 연령별 독서 패턴 분석

2025년 출판시장은 독서의 중심 연령대와 관심 주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의 연령별 판매 비중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가 22.7%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해 여전히 중 · 장년층이 출판시장의 핵심 소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험과 축적된 독서 이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구매력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문학, 인문, 사회적 성찰을 담은 도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20 · 30대는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감수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독서를 이어가며, 세대별로 차별화된 독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출판시장이 단일한 트렌드보다는 세대별 관심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 종합 10위권 연령대별 판매비중 (단위: %)

순위	도서명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소년이 온다	6.2	14.8	17.3	34.2	22.1	5.5
2	모순(양장본)	6.4	25.8	24.2	25.1	15.1	3.4
3	흔모노	4.0	15.2	27.0	33.2	17.0	3.6
4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1.6	10.0	20.7	37.7	24.4	5.6
5	초역 부처의 말	1.0	12.8	25.2	35.3	20.2	5.5
6	트렌드 코리아 2026	2.0	9.7	24.8	34.8	23.7	4.9
7	급류	15.1	28.1	16.1	25.2	13.3	2.2
8	청춘의 독서	1.4	3.8	11.7	40.6	35.3	7.1
9	채식주의자	7.1	18.1	18.1	28.1	22.5	6.0
10	단 한 번의 삶	1.4	6.9	19.4	40.0	25.9	6.3
전체		4.6	14.5	20.5	33.4	22.0	5.0

개별 도서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40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 독자 구조가 출판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을 보면 40대가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50대 22.0%, 30대 20.5% 순으로 나타나, 30~50대가 전체 판매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도서별로 살펴보면, 다수의 작품에서 40대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소년이 온다》는 4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37.7%, 《초역 부처의 말》은 35.3%, 《트렌드 코리아 2026》는 34.8%를 기록했다. 특히 《청춘의 독서》는 40대 비중이 40.6%로 전체 도서 가운데 가장 높아, 인문적 성찰과 세대적 기억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중장년층 독자에게 강하게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독자층은 일부 도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감정과 관계, 동시대적 정서를 다룬 작품에 적극

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혼모노》는 30대 비중이 27.0%로 가장 높았고, 《모순(양장본)》 역시 30대에서 24.2%를 차지해 40대와 유사한 수준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30대 독자들이 문학적 감수성과 현실 인식이 결합된 작품에 폭넓게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대의 경우 도서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급류》에서는 20대 비중이 28.1%로 가장 높아 젊은 독자층의 선택적 집중이 확인되었다. 반면 《청춘의 독서》(3.8%), 《트렌드 코리아 2026》(9.7%)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특정 주제와 서사에 따라 구매 여부가 뚜렷하게 나뉘는 양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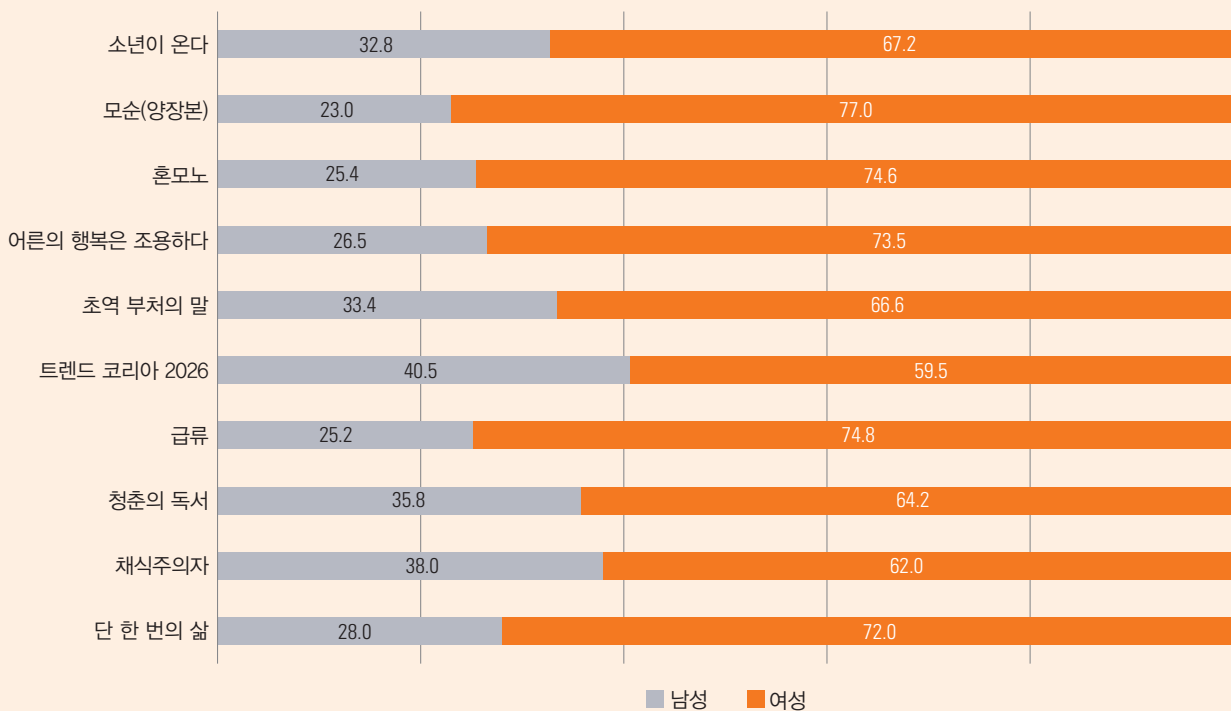
1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전체 평균에서 각각 4.6%, 5.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10대 이하는 《급류》(15.1%)와 《채식주의자》(7.1%) 등 문학성이 강한 작품에서 비교적 높은 참여를 보였고, 60대 이상은 《청춘의 독서》(7.1%), 《단 한 번의 삶》(6.3%) 등 인문·성찰형 도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나타냈다.

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의 성별 구매 비중을 보면, 여성 독자가 출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모든 도서에서 여성 구매 비율이 남성을 상회했으며, 대체로 60~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소년이 온다》, 《모순》, 《혼모노》,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등 문학, 에세이 분야 도서는 여성 비중이 70% 내외로 높아 감정과 서사를 중심으로 한 독서가 여성 독자층에서 강한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역 부처의 말》과 《청춘의 독서》 역시 여성 비중이 60% 이상으로, 성찰과 가치 탐구형 도서에 대한 여성 독자의 꾸준한 수요가 확인된다.

반면 《트렌드 코리아 2026》와 《채식주의자》는 남성 비중이 각각 40.5%, 38.0%로 다른 도서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트렌드 중심 콘텐츠에서는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종합 10위권 성별 판매 비중 (단위: %)



전반적으로 2025년 출판시장은 독자 수요가 비교적 분명한 장르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스24 해킹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구매 흐름에 일시적인 제약으로 생긴 점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와 텍스트힙(Text Hip) 현상은 독자와 콘텐츠 간 접점을 넓히며 일부 장르에서 수요 회복을 견인했다. 여기에 영화, 드라마, 소셜미디어 등 타 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해 주목받은 도서들이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며, 출판 콘텐츠가 다른 미디어와 상호 작용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출판시장의 향후 회복 여부가 단기적인 판매 반등이나 계절적 요인보다는 유통 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장르별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독자 소비 심리의 실질적인 회복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김동혁 \_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조교수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출판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024),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2024), 『적소이론을 통해 본 도서 발견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으며,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대응한 대안 제시와 정책 제언에 힘쓰고 있다.